

퀘스트 _ 즐거리를 회수하라



작가 김연주 글 | 박시현 그림
정가 14,000원 | 쪽수 244쪽 | 펴낸 곳 도서출판 풀빛
분류 국내도서 > 청소년 > 문학
대상 학년 중·고등학생
교과 연계 국어 / 문학

※ 이 지도안은 풀빛출판사 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여건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변형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망가져 버린 소설 속으로 초대합니다.”

‘유능한’ 스토리텔러와 ‘평범한’ 여고생의

유쾌하고 발랄한 명작소설 즐거리 회수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꿈이 뭐니?”라고 한다. 《퀘스트》의 주인공인 서하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는 학교에서 받은 자기소개서의 장래 희망 칸에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제목인 ‘스토리텔러’를 적는다. ‘스토리텔러’는 작품 속에서 소설 캐릭터에 빙의해 이야기 흐름에 오류가 없는지, 즐거리가 작가의 생각과 같은지 등을 파악하는 신생 직업으로, 연예인만큼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하나가 원래부터 스토리텔러란 직업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짝 친구인 보미가 스토리텔러의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를 보며 호들갑 떨었던 게 생각나서 영겁결에 도서관에서 골라온 책이었다.

그날 밤 하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읽던 중, 갑자기 책에서 빛이 쏟아지며 웬 손이 불쑥 튀어나오자 잡아당긴다. 책 밖으로 튀어나온 손의 주인공은 업계에서 최고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스토리텔러 A. ‘평범한’ 여고생 서하나와 ‘유능한’ 스토리텔러 A는 안티 스토리텔러 X에 의해서 망가진 명작소설의 꼬여 버린 즐거리를 회수할 수 있을까?

선생님 도움말

“소설이 원래 이렇게 재미있는 건가요?”

스토리 창작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독서

한국 독자들이 좋아하는 세계 명작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린 왕자》, 대표적인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별주부전》의 꼬여 버린 즐거리를 주인공과 함께 퀘스트에 성공하면서 원래대로 회수하는 과정은 원작을 다시 찾아서 읽고 싶을 정도로 유쾌하고 새롭다!

이 책은 십 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판타지, VR 게임의 요소, 웹툰에서 나오는 서사 장치들을 접목해 문학과 친밀하지 않은 초보 독자마저도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또래 아이들이 공감할 주제인 꿈 찾기와 진로 고민을 주인공의 여정 속에 담아내 국어와 문학 수업뿐만 아니라, 진로 교과 수업에 적용하기 매우 좋게 만들어진 청소년 소설이다.

♥ 기발한 상상력이 가득한 소설 속으로 초대합니다 ♥

책 제목	퀘스트	지은이	김연주 글, 박시현 그림	출판사	폴빛
학교		학년/반		이름	

| 서하나는 장래 희망 칸에 왜 ‘스토리텔러’라고 적었나요? (14쪽)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고 물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

.....

.....

.....

.....

| 소설 속에서 ‘스토리텔러’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13~14쪽)
최근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나 웹툰, 드라마,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

.....

.....

.....

.....

| 주인공 하나처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빙의한다면 가장
만나고 싶은 등장인물은 누군가요? 그 이유는요?

.....

.....

.....

.....

.....

나의 꿈은 뭔가요?

장래 희망은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 좁은 의미로는 장래에 원하는 직업을 의미해요. 나의 진로 희망은 뭔가요? 미래의 직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곤 하나요?

《퀘스트》 속에서의 새로운 직업

소설 캐릭터에 빙의하여 이야기 흐름에 오류가 없는지, 줄거리가 작가의 생각과 같은지 등을 파악하는 신생 직업이에요. 매년 공개 채용하며,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부서는 창작부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매력적인 캐릭터들

시간을 재촉하는 흰토끼, 앞이 보이지 않는 누에고치가 된 애벌레, 레드우드 위의 어린 비둘기, 겨울잠에 빠진 체셔 고양이, 수다쟁이 겨울잠쥐, 앨리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눈의 여제 등 어떤 인물과의 만나고 싶나요?

| 《어린 왕자》의 에피소드에서 왕자가 한 달이 넘도록 여우를 만나러 오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118쪽)

.....
.....
.....
.....
.....

| 길들이거나 친해지고 싶은 존재(사람, 동물)가 있나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135쪽)

.....
.....
.....
.....
.....

| 어린 왕자를 위해 하나는 어떤 <퀘스트>를 성공했나요?
<보상>은 무엇이었나요? (142, 150, 154쪽) 나는 왕자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
.....
.....
.....
.....
.....
.....
.....



망가져 버린 소설 속으로!
팝콘을 먹으며 넷플릭스를 보느라 할 일을 잊은 어린 왕자는 원작 소설 속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요? 유쾌하고 발랄하게 꼬여 버린 스토리를 비교하면서 읽어 보아요.

길들이다
길들이다는 건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면 소중해지죠. “친해지려면 길들이야 하고, 길들이려면 친해져야 하잖아. 어떤 관계든 믿음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서툰 믿음만큼 관계를 해치는 것도 없으니까.” (135쪽)

<퀘스트> 우울한 ‘어린 왕자’를 빈백에서 일어나게 하세요.
<보상> ‘어린 왕자’의 체지방이 5 감소합니다. <실패> ‘어린 왕자’의 체지방이 5 증가합니다.

<퀘스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린 왕자’를 산책시키세요.
<보상> ‘어린 왕자’의 체지방이 5 감소합니다. <실패> ‘어린 왕자’의 체지방이 5 증가합니다.

| 청소년기에 '문학 읽기'를 권하는 이유는 뭘까요?

.....
.....
.....
.....
.....
.....
.....
.....

| '책 속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면 들어가고 싶은 작품은?
(소설, 영화, 웹툰, 게임 뭐든 좋아요.)

.....
.....
.....

| '내가 만약 안티 스토리텔러 X라면' 스토리를 바꾸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요? 새롭게 스토리를 창작해 보아요.

(제목:)

.....
.....
.....
.....
.....
.....
.....
.....
.....
.....
.....
.....
.....
.....
.....
.....
.....
.....
.....
.....
.....

스토리는 힘이 세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좋은 문학 작품을 많이 읽도록 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어서예요. 좋은 이야기는 다양한 인물의 삶과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또한 작품 속 주인공의 고민과 성장을 지켜보며 미래의 자화상을 그려볼 수 있고, 어휘력과 문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요. 이것은 학업 성취도와도 직결되는 의미 있는 효과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이 소설에 입문하기에 알맞은 시기인데, 좋은 문학 작품 읽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아를 탐색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